데스크시각

왜 타이거즈를 응원하십니까

윤영기
체육부장

메이저리그 칼럼니스트인 윌 리치가 지난 5월 메이저리그야구(MLB: Major League Baseball) 사이트에 칼럼을 게재했다. '맷 윌리엄스에게는 한번도 없었던 홈런'(For Matt Williams, the HR chase that never was)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그의 글에 이런 대목이 보인다. "그(맷 윌리엄스)는 최희섭이 타격코치를 맡고 있는 기아 타이거즈 감독이다."(He's the manager of the Kia Tigers-Hee-Seop Choi is his hitting coach!)

하지만 아쉽게도 '광주'라는 단어는 그의 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해외 야구팬들에게 글로벌 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말이다. 이는 기아타이거즈 구단 명칭에 '광주'가 들어 있지 않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기아는 광주를 마케팅 기반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정작 연고지를 팀 명칭에 넣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국내 프로 축구나 농구 팀은 도시명을 팀 이름 앞에 내세우고 있다. 미국 프로야구단도 예외 없이 연고지가 우선이다. 기아뿐만 아니라 도시명을 구단 명칭에 사용하지 않는 것은 국내 타 프로야구단도 마찬가지라고? 그건 기아를 비롯한 모든 구단들의 명백한 담합(?)이고 연고지에 대한 배신이다. 특히 기아는 달리 생각해야 할 지점이 있다. 세금으로 지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총 건립 비용 994억 원 가운데 광주시 예산 396억 원과 국비 298억 원을 들여 지은 공간이다. 기아자동차도 300억 원을 보태기는 했지만.

기아, 뚫기 어려운 '좁은 문'

'기아 타이거즈 주식회사'가 2001년 8월 주식회사 해태 타이거즈를 인수해 운영한 지 햇수로 벌써 20년째다. 해태 시절이나 기아 시절이나 팬들의 지지는 변함없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타 구단에서 부러워하는 팬들의 '기아 사랑'은 지역민의 일방적인 애정일 뿐이다. 이는 구단 자체만 보면 팬들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다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

광주·전남 초중고교에서 야구를 하는 아마추어들에게 타이거즈는 희망이 아니라 '넘사벽'(넘을 수 없는 사차원의 벽)이다. 기아는 지난해 8월에 열린 신인 드래프트에서 모두 10명을 선발했는데 지역 연고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 현재 기아타이거즈 1, 2군에 등록한 선수들은 모두 79명. 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이나 연고 선수들은 모두 15명으로 19%대다. 기아에 적을 둔 군 복무 보류 선수까지 통틀어도 전체 96명 가운데 지역 출신은 23명(24%)뿐이다. 그러니 '광주 연고 구단'이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올 시즌 타 구단 1군에서 뛰는 광주·전남 출신 선수들은 줄잡아 30여 명을 헤아린다. 기아 소속 지역 선수보다 더 많다. 지난 21일 타이거즈와 다이노스 경기 라인업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 포수 양의지를 비롯해 외야수 나성범·김성욱(이상 진흥고)과 노진혁(동성고)이 선발 출장했고, 불펜 임창민(동성고)과 교체 출장한 내야수 모창민(광주일고)까지 무려 6명이 그라운드에 나왔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 지역 출신 쟁쟁한 선수들을 보면서 광주 야구의 저력을 실감하기보다는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이들은 어찌하여 고향을 놔 두고 객지를 떠돌며 생활해야 하는 것일까.

지역 출신 선수들에게 과감히 문호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기아에게는 앞으로 더 좋은 핑곗거리가 생길 것 같다. 프로팀이 연고 지역 유망주를 우선 지명하는 신인 1차 지명이 내년을 마지막으로 사라지기 때문이다. 2023년 신인을 뽑는 2022년부터 프로 10개 구단은 균형 발전과 전력 평준화를 위해 '전면 드래프트'를 시행한다. 기아가 지역 출신 선수를 몇 명이나 뽑을지 자못 궁금하다.

물론 기아 타이거즈가 자선·공익 구단이 아닌 이상 무턱대고 지역 선수들의 보유 비율을 높일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도 잘 안다. 하지만 광주 연고 구단이라고 내세울 만한 '최소한의 안배'는 있어야 할 것 아닌가. 국내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구단이라면 지역 아마 야구를 고려한 스카우트 전통도 이어가야 한다. 그래야 연고 구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아는 야구에 관한 한 광주·전남 지역 스포츠 연계 육성 체계의 정점에 있다. 초중고 선수들이 힘들게 운동하면서도 밥과 꿈을 좇을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기아다. 이들에게 미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할 망정 꿈마저 포기하게 만드는 구단으로 남아서야 되겠나.

지역 출신 과감히 육성해야

기아 전용 구장인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지난 20일 다시 닫혔다.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조촐한 응원단만 지키는 텅 빈 관중석, 맥 빠진 그라운드 풍경이 쓸쓸하다. 이런 모습은 팬들에게나 구단에나 '꿈에도 보고 싶지 않은 디스토피아'일 터. 따라서 모두들 이런 혹독한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소망할 것이다. 한데 그동안 기아가 걸어 온 길을 반추해 보면 '잠깐 지나가는 소나기'로 여기기는 어려울 것 같다. 오히려 '앞당겨진 미래'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penfoot@

은펜칼럼

세한도를 보며

옥영석
자활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십여 년 전 일이다. 좋은 학교를 나와 유수한 부서를 거쳐 승진 대상이 된 한 선배는 잘나가는 사람이었다. 주도면밀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퇴근 후엔 호쾌하게 술자리를 주도하며 상사들은 형님, 후배들은 아우로 삼으니 언제나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였다.

상사들은 그를 능력있고 카리스마 있는 직원으로 여겼지만, 매사에 주도적이다 보니 다소 독선적인 것이 흠이라면 흠이였다. 아니나 다를까 연말 인사에서 그는 고배를 마셨다. 직장 생활이 많은 급여나 좋은 환경보다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던 그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충격이었을 것이다. 며칠 동안 술에 절어 지냈고, 상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생각했는지, 인사마저 하려 들지 않았다.

상심한 그에게 나를 비롯한 동료들은 부장님의 따뜻한 위로를 기대했다. 안타깝지만 내년을 기대해보자며 술잔이 몇 번 돌다 보면, 마무리되는 게 대강의 수순이었으니 말이다.

그러나 부장님은 "어려울 때에야말로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다"며 크게 꾸짖고는 더 이상 그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다. 그러는 동안 부서 공기는 더 싸늘하게 식어갔고, 당사자들이야 그렇다지만 그 사이에서 힘들었던 직원들의 고충은 말이 아니었다.

지난주엔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세한도가 큰 화제였다. 추사 김정희의 걸작이자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국보가 아무 조건 없이 국가에 기증된 것이다.

몇 해 전 어쩌다 그의 삶과 작품에 대해 마주해 본 나는 신산했던 대가의 말년이며 글과 그림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극도의 절제와 생략으로 역경을 이겨내고자 하는 선비의 기개와 의지를 그려낸 세한도를 보는 순간 전율을 느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

증조부가 영조의 부마였으며 아버지가 병조판서를 지낸 명문가의 후손이었던 그는 동지부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연경에 가 당대의 석학들과 교류하게 된다. 이후 병조참판까지 지냈으나 정쟁에 휘말려 갖은 고문을 당하고 제주에 유배를 가게 된다. 오십 중반에 감당해야 했던 고문, 절해고도의 끝에서 울타리 밖으로 나갈 수도 없는 형벌은 9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그 와중에 제주까지 건너가 수발을 든 이가 소치 허련이었고, 연경에 갈 때마다 서적을 구해다 준 제자가 역관 이상적이었다. 권좌에서 밀려나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스승에게 변치 않는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그는 유배지의 곤궁한 처지에 종이 세 장을 덧붙인 다음, 세한도를 그려 이상적에게 보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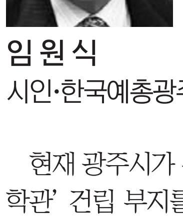
그림이 중앙박물관까지 오게 된 사연도 극적이다. 제자에게 그려준 세한도는 일제말 민영휘의 손을 거쳐, 청조학 연구에 몰두하던 경성제대 교수 후지스카 치카시의 소유가 되어 일본으로 넘어간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진도 출신의 서예가 소전 손재형이 미군의 공습이 한창이던 동경으로 건너가 100일 동안이나 문안을 하며 그림을 넘겨 달라 간청했다. 청조학 연구의 1인자가 추사였음을 알았던 치카시는 결국 돈 한 푼 받지 않고 세한도를 넘겨주었고, 이후 개성 출신 실업가인 손세기, 손창근 부자의 손을 거쳐 중앙박물관으로 가게 된 것이다.

작품의 가치를 알고 넘겨준 치카시 교수나 아무런 조건 없이 기증한 손창근 선생의 도량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다. 치카시의 아들 또한 나머지 일만 오천여 점이 넘는 자료를 2006년에 기증하여 과천 추사박물관에 전시되고 있다니, 부자의 대를 잇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 고개가 숙여진다.

그나저나 10년 전 부장님의 결정이 옳은 것이었는지는 아직도 헷갈린다. 소나무만으로는 숲이 우거질 수 없을 터, 나머진 다 잘라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은 아직도 내 그릇이 작은 것인지, 수양이 부족한 것인지.

기 고

광주문학관, 지금은 콘텐츠를 논할 때다



임원식
시인·한국예총광주연합회 회장

현재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문학관' 건립 부지를 놓고 최근 다른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물론 문학인들이나 시민들 누구나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것이 민주 사회이다. 그러나 광주문학관 건립 부지는 이미 여러 절차를 거쳐 확정된 바 있다.

비유하자면 벌써 배가 출항하여 목적지를 향해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고 있는 셈이다. 이미 항구를 떠난 배를 다시 회항하도록 하는 의견이라면 이는 결코 광주문학관 건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아시다시피 광주는 전국의 시도 지자체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문학관'이 없는 유일한 도시이다. 광주는 다른 지자체와 달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라는 특성을 가진 도시이기에 더욱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광주시 당국이 '문학관' 건립 의지를 갖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이미 1990년대 후반부터 문학관 건립 의견들이 논의된 뒤 광주시에서는 2008년 문학관 건립 관련 용역을 추진했다.

그러나 2013년 '빛고을 문학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 사업을 실행하던 단계에서 부지 문제를 둘러싼 잡음 때문에 좌초하고 말았다. 당시 '빛고을 문학관 건립 추진위원회'는 문학관 우선 협상 대상자 1순위로 '명성예식장'을, 2순위로는 '히딩크호텔'을, 3순위로는 옛 '현대극장'을 선정한 바 있다. 한데 거액의 기부금 요구, 부지 임의 변경 등의 잡음으로 시민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됐다. 따라서 문학관 건립 추진은 딱 거기에서 멈추고 말았다.

하지만 이렇게 좌초된 문학관 건립 사업을 광주문인협회와 광주전남작가회의를 비롯한 문학 단체들이 나서서 다시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2017년 7월 17일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광주문인협회·광주전남작가회의가 주관하는 '광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간담회'가 열린 것이다. 이 간담회에는 문학지 발행인, 학계, 경제계 등의 인사들도 대거 망라돼 충분한 대표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이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1만인 서명 운동을 펼쳐서 문학관 건립에 대한 요구를 시 당국과 시의회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2017년 9월 26일 지역 문인 단체,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2차 추진위원회'를 갖고 "광주의 문학을 위한 거점 공간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이렇게 해서 광주문학관 건립에 대한 문인들의 소망을 이룰 길이 다시 열리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문학인들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1월 16일 "문학을 브랜드로 지역 문화자산을 알릴 수 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그해 2월부터 7월까지 '광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한다"고 발표하고 문학관 건립 추진의 돛을 올렸다.

용역 업체가 선정되어 용역에 착수한 후 시민 공청회, 중간 설명회. 최종 설명회를 거쳐 2018년 12월 14일 보고회를 갖고 최종 후보지 네 곳 가운데 1순위로 광주 북구 각화동 시화 문화마을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 통과됐고, 171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지 6369㎡에 연면적 273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하기로 했다.

이로써 광주문학관 건립 사업의 큰 틀이 마련된 셈이다. 지금 광주문학관 건립이라는 선박은 이미 희망봉을 돌아 2022년 대망의 도착항을 향해 대해를 건너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건립 장소를 가지고 논의하자는 것은 목적지를 포기하고 떠나온 항구로 다시 뱃머리를 돌리자는 요구와 다르지 않다. 그런 의견이 있었다면 공청회와 설명회가 진행될 때 말했어야 한다. 배는 이미 떠났다. 따라서 지금은 건립 부지 선정을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 공간에 어떤 콘텐츠를 담을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이다. 어떻게 하면 타 시도와 다른 광주 문학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창의적 제안을 개진할 때인 것이다. 어찌 이제 와서 또다시 세월을 낭비하려 하는가.

社說

나의 무분별한 행동이 남의 일상을 망친다

갈수록 코로나가 극성을 부리는데도 노래방이나 유흥 주점에서 음주가무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다. 세상이 발칵 뒤집혀도 '나 몰라라' 천하태평인 사람들이다. 더군다나 유흥주점 주인과 손님 모두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발생한 광주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 가까이 된다. 문제는 상무지구 유흥시설 방문객이 최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여 대규모 확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곳 유흥시설 방문자 가운데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은 이는 4500명을 넘어섰고, 이중 3000여 명이 일주일 넘게 방문 사실을 숨기고 일상생활을 했기 때문이다.

전국 확산의 숙주 역할을 하고 있는 8·15 광화문발 집단 감염 우려도 여전하다. '서울 광화문 집회'를 다녀왔던 사람 중 상당수는 방역 당국의 전화 연락조차 받지 않는가 하면 이동 동선 자체를 허위로 진술했다가 고발 조치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광화문 집회에 광주에서 전세버스 세 3대와 개인 차량 등을 이용해 222명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들 중 131명이 검사를 받아 8명이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1명은 가족 감염을 일으키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 중 90여 명은 여전히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당국은 코로나 확산세에 따라 거리 두기 3단계 강화를 고민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일상은 멈추고 경제는 한순간에 곤두박질치게 된다. 시민 모두가 최일선의 방역 책임자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나 하나의 무분별한 행동이 남의 일상을, 아니 내 가족의 일상을 망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물난리 이은 초강력 태풍 철저히 대비해야

강한 바람과 집중 호우를 동반한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하면서 전남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유례를 찾기 힘든 최악의 물난리로 인한 피해 복구가 채 끝나지 않은 데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사람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을 가진 태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서해를 따라 북상하고 있는 태풍 바비 진로의 오른쪽 위험 반원에 놓인 전남은 내일 낮부터 모레 오전까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예상 강우량은 50~100㎜, 지리산권은 100~300㎜다. 또 해안 지역에는 초속 40~60m의 강풍이 예보됐는데 이 정도 바람 세기면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없고 시설물이 날려 훼손되거나 부서질 수 있다.

북상 과정에서 세력을 더욱 키우고 있는 태풍 바비는 지난 2012년 막대한 피해를 안겼던 '볼라벤'과 유사한 강도의 강력한 태풍이 될 것이라는 게 기상청의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에 이달 초 폭우와 물난리로 40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전남 지역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유실된 하천 제방과 산사태 발생지 593곳 가운데 3분의 1 가량은 아직 응급 복구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구례·곡성·담양 등 대규모 수해 지역 주민들도 농경지와 주택 등의 침수 피해 복구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태풍을 맞아야 할 형편이다. 물난리로 발생한 이재민 5090명 가운데 아직 집에 돌아가지 못한 주민도 300여 명에 이른다. 특히 긴 장마로 지반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많은 비가 또 쏟아질 경우 2차 피해까지 우려된다.

태풍으로 인한 시설물과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무엇보다 사전 점검과 배수로 정비 등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전남은 산사태 취약지가 2361곳에 달할 정도로 많은 만큼 지자체들은 지난번 폭우 때와 같은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재해 예방은 사전에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최선이다.

無等鼓

'검은 반도체'

요즘 가장 잘나가는 'K-푸드'는 김이다. 글로벌 웰빙 식품으로 인식되면서 지난해 김 수출액은 6775억 원으로, 그동안 부동의 1위였던 참치를 끌어내리고 수산물 수출 1위 품목에 올랐다. 2010년 수출액이 1160억 원이었으니 9년 만에 6배쯤 늘었다. 수출국도 2007년 49개국에서 지난해 139개국으로 급증했다.

김은 한때 서양에서 '블랙 페이퍼'로 불렸다. '김 한 장에 달걀이 하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식이지만, 서양인들이 김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탓이다.

하지만 K-푸드 인기 속에 조미김을 기본으로 다양한 스낵류를 생산해 수출하면서 서양인들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김 수출 대상 1위국도 일본에서 미국으로 바뀌었다. 미국에만 연간 6억 달러어치가 수출되는데 92%가 조미김이다. 워낙 인기가 높자 미국 스타벅스가 김 스낵을 출시했는데 이것이 역으로 수입돼 우리나라 스타벅스 매장에서 팔리고 있다.

블랙 페이퍼에서 '검은 반도체'로 변신한 한국산 김의 본고장은 전남이다. 조선 선조 때인 1643년 김여익이 광양 태인도에서 김 양식에 처음 성공한 후 국내에 널리 보급됐다고 한다. '김'이라는 명칭도 김씨 성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은 김 생산지로서 위상을 확고하게 지켜 오고 있다. 지난해 전국 김 생산량 56만t 가운데 82%인 46만t이 고흥·완도·진도·해남 등 전남에서 나왔다. 장흥 무산김은 고유 브랜드('gim Me')로 해외 고품질 김 시장을 석권하고 있다.

최근 국내 최대 김 양식장인 마로해역(해남 송지면과 진도 고군면 사이), 그리고 고흥 지역에서 어업권 분쟁이 일고 있다. 마로해역에선 해남과 진도군 어민들이, 고흥 발포·지죽 해역에선 고흥군수협과 나로도수협이 김 양식 어업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40년 이상 어업권을 가진 어민과 실제 양식 어민들이 달라 빚어진 일이다.

최근 분쟁이 계속되는 이유는 일단 김이 돈이 되기 때문인데, 전남도와 고흥군 등 자치단체의 합리적인 해법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큰 틀에선 정부가 김 양식 신규 개발을 허가해 주는 것도 해법일 듯 싶다. /장필수 제2사회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전남본부 220-0642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2-0195〉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